

중국 경기둔화 국가별 수출 명암 한국은 타격...동남아 국가 선방

이달 한국 전년 대비 11.2% 감소
일본·대만 등 동북아 크게 줄어
인도네시아 17%·태국 등은 늘어

중국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에 주로 전자·정보기술(IT) 제품을 수출해온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타격을 받은 반면 원자재 위주로 수출해온 동남아 국가들은 선방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31일 분석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20일 한국의 달러 기준 대(對) 중국 수출액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고, 같은 기간 홍콩으로의 수출도 45.0%나 줄어 들었다.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디스플레이·정제유 등이다.

중국에 주로 전자제품과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일본도 수출 감소 압력을 받고 있다. 엔화 약세 덕분에 지난해 일본의 엔화 기준 대중 수출은

12.8% 늘어났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9.2% 줄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대만도 지난달 중국·홍콩으로부터 받은 수출 주문은 전년 동기 대비 22.6%나 줄었다. 대만의 대중 수출액 중 3분의 2가량은 전자제품과 첨단 반도체다.

반면 동남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의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고, 유류 수출을 제외한 수치는 40.9%나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은 팜유와 석탄 등이다.

합성고무와 과일 등을 수출하는 태국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25%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0.8% 증가했다.

태국의 대중 수출은 5월 3.8% 늘었다가 6월 2.7% 감소했다. 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과 화학제품 수출은 줄었지만, 과일과 고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계류 등이 주력 수출품인 싱가포르의 지난달 대중 수출은 달러 기준 3.8% 늘어났다. 같은 기간

말레이시아의 대중 수출액은 링깃화 기준 약 10%, 달러 기준 32.6% 증가했다.

집적회로(IC), 사무용기기 부품, 니켈 광물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필리핀의 6월 대중 수출 실적은 18.8% 떨어져 동남아 다른 국가들과 대비를 이뤘다.

블룸버그는 대중 수출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부진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감소, 동남아 국가들의 선방에는 코로나19 이후 '보복 소비' 흐름 등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더해 코로나19 봉쇄와 부동산 경기 하락, 가뭄에 따른 전력난까지 겹친 상태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두 달째 경기 위축 국면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내세웠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5.5% 안팎'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



튀르키예 '승리의 날' 100주년 기념 행진 튀르키예(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군인들이 '승리의 날' 100주년 기념 행진을 하고 있다. 승리의 날은 1922년 튀르키예 독립전쟁 당시 동루프나르 전투에서 그리스에 승리한 것을 기념한다. /연합뉴스

달 탐사 아르테미스 로켓발사 내달 3일 재시도

“연기 원인, 센서 문제였을수도”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의 첫 로켓 발사가 다음 달 3일(현지시간)로 재설정됐다.

로이터, A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30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1단계 로켓인 '우주발사시스템(SLS)'의 발사 시도 시점을 이같이 밝혔다.

예정 시간대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달 3일 오후 2시 17분(한국시간 4일 오전 3시 17분)부터 2시간으로 설정됐다.

SLS는 애초 지난달 29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엔진 결합 등 우려 때문에 연기됐다.

NASA는 2차 발사 시도 예정일을 2일로 잡았지만 기상 조건이 나빠 날짜를 다시 옮겼다. 다만 NASA는 새 발사 시도 때 오전과 이른 오후에 소나기, 뇌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NASA는 계획을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상

조건이 허용치를 넘을 가능성을 60%로 계산했다.

이날 NASA는 1차 연기를 초래했던 엔진 냉각 문제가 엔진 결합이 아니라 온도를 표시하는 센서 문제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발사팀은 SLS 발사를 위해 엔진을 충분히 냉각하는 '컨디셔닝' 과정을 시작했지만 4개의 주 엔진 중 하나가 예상대로 냉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NASA는 당시 센서상으로는 엔진 온도가 충분히 낮게 표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엔진이 적절히 냉각됐으나 센서 데이터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센서를 교체하는 것은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센서를 바꾸려면 로켓을 발사대에서 격납고로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발사일 때까지 수주되는 수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발사가 불발된 로켓은 현재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 거치된 상태다. /연합뉴스

기자 피라미드 건설 가능케한 하천 있었다

대형 석재 운반 미스터리 풀려

이집트 북부 기자의 피라미드는 웅장한 규모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쿠푸왕의 대피라미드는 높이 147m에 밑면 길이 230m로 건축에 들어간 석회암과 화강암 등 2이 넘는 대형 석재가 약 230만 개, 5900만에 달해 기원전 2560년 무렵의 기술로 어떻게 이 많은 돌을 운반했는지가 미스터리가 돼왔다.

하지만 꽃가루 화석을 이용한 환경 분석을 통해 기자 피라미드 인근을 흐르던 나일강 지류의 흔적이 확인돼 대형 석재 운반을 둘러싼 의문이 풀리게 됐다.

프랑스 '유럽 환경지구과학 연구교육센터'

(CEREGE)의 환경지리학자 하데르 세이사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기자 피라미드 주변에서 시추한 퇴적층에서 발견된 꽃가루 화석을 통해 나일강 지류의 증거를 확보한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했다.

PNAS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집트 제4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인 쿠푸왕의 이름을 따 '쿠푸 지류'로 명명된 이 하천이 나일강 본류에서 약 7km 떨어진 피라미드 건설 현장까지 물자를 수송하기에 충분한 수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제시했다.

피라미드 물자 운반에 나일강이 이용되고 건설 현장까지 수로를 뚫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 제기됐으나 이를 입증할 수가 없었다. /연합뉴스



발트해 8국 "2030년까지 해상 풍력발전 7배로" 발트해 인접 국가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코펜하겐 인근에서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덴마크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스웨덴 등 발트해 8개국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해상 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20기가와트로 7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대만군, 中무인기 향해 사상 첫 실탄 경고 사격

잇단 드론 출현 대응 수위 상향

대만군이 30일 대만 영역으로 들어온 중국 드론(무인기)을 향해 실탄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대만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대만군 진면방 어사령부는 "무인기 1대가 30일 오후 5시59분(이하 현지시간) 일단 지구의 해상 통제 구역 상공에 진입하자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무인기는 오후 6시께 (중국) 사면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밝혔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30일 오후 "적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국 무인기를 제압하라"는 지시

를 하달한데 이어진 대응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중국과 대만의 갈등 심화 국면에서 대만군이 중국 드론을 향해 이 같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고 사격에 앞서 이날 오후 다단, 열단, 스위 등 진면 섬 주변 섬에서 민간용 무인기 3대가 대만군에 발견됐다. 대만군이 신호탄 사격을 하자 무인기는 사면 방향으로 날아갔다.

그 이후 무인기 1대가 다시 열단 지구 해상 통제 구역 상공으로 진입하자 대만 군이 절자에 따라 1차 경고를 했다. 그럼에도 무인기가 떠나지 않자 대만군은 '실탄 방어 사격'을 했고 해당 무인기는

약 1분만에 다시 사면 방향으로 날아갔다고 통신은 소개했다.

이번 경고 사격 대응은 최근 대만 최전방 도서에 중국 드론의 출현이 잦아졌지만 군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대만 내 비판 압력이 고조된 가운데 나왔다.

중국 사면시로부터 4.5km 떨어진 열단 섬의 경제 초소에서 근무하던 대만군 병사가 상공에 나타난 중국 드론에 돌을 던져 쫓아내려고 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지난 25일 중국판 유튜브인 비리비리에 공개돼 대만에서는 왜 총기로 격추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